

## 두개의 길

마태복음 7:13-14

John MacArthur

마태복음 7 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주님께서 직접하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중에서 아마도 가장 두려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21 절에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2 절 마지막 심판의 날을 가르키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에 관하여 예기를 하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라고 잠언서 30:12 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 장 2 절에선 유대인들을 가르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세상엔 자신들을 가르켜 종교적이고, 기독교와 연관이 있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짓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 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피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에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23 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시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천국에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게 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칭 예수님을 따른다고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선포하실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자들에게 이보다 보다 더욱 두려운 말은 없을 것 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자들 외에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6 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12 절은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16 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9-10 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얻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없습니다.복음이 없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 쫓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실 것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오늘날 상당히 중요합니다. 13 절, 14 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게는 말들을 잘 들어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5 장에서 7 장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설교입니다. 신약에 기록된 최고의 설교인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마지막 결단을 내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초청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청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졌을때 초청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이것을 초대라고 할때에는 초대를 받는 자들로 하여금 이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은 자유가 있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대'라는 단어에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말씀을 하실때 있었던 권위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13 절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는 명령입니다. 모든 **성경적인 복음으로의 부르심**은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모두 명령입니다. 듣는 자로 하여금 순종을 하던지 불순종을 하던지, 순복하든지 반항을 하던지 결정을 내리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오해의 여지가 없는 강력한 명령으로 설교를 마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은 자들은 순종을 할지 아니면 반항을 할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대를 하신다고 하기보다는 명령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욱 적합한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전체는 하나의 '큰 대조' 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설교 전체는 진정한 종교와 유대교의 대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진정한 종교와 거짓된 모든 종교들과의 대조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첫째는 자신의 행위, 선행, 노력, 의로움, 선함에 의존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무언인가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든지, 이 두 가지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길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길입니다. 여기엔 여러분의 선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종교적 행위, 여러분의 종교 의식들이 중요합니다. 이런것들은 행위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에 의존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를 의존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육에 속한 종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 내게 하는 종교입니다. 둘째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길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이며 의존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루시는 종교입니다. 이 둘을 섞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 온전히 은혜로만 얻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3:20 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믿던 유대교는 사단의 영역안에 있는 많은 거짓 종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종교를 공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각별히 놀라운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뻔히 보이는 죄들을 공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간음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정욕에 죄에 대하여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공격하신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가르치는 유대교의 근본적 오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들의 기도하는 것을 공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헌금을 공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섬김을 공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예배를 공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결코 공격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들을 공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유대교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무너 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은 “나는 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구원을 이루시는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논지에 일치하도록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것은 무슨 뜻이지요? 여기서 사용되는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는 ‘파산’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파산한 자들은 복이 있다. 절망적이고 심히 궁핍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것이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산산히 부서지고 으스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처해진 끔찍한 상태를 보고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꼭 있어야만 하지만 자신에게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 얻을 수도 없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거짓 종교와 진리의 종교를 대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가 끝에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명령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자택일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가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개의 갈림길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두개의 문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든지 선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예수님 앞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내려야만하는 선택을 잘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본문에서 6 개의 대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6 개의 대조들을 아웃라인으로 삼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번째로, 멸망이라는 목적지와 생명이라는 목적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번째로, 많은무리와 적은무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말만하는 자와 행동하는 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섯번째로, 모래로 만든 터와 반석으로 만든 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대조들은 결국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 종교들과 진정한 종교의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대조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대조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좁은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13 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두 문 모두 종교적입니다. 두 문 모두 하나님을 약속합니다. 두 문 모두 천국을 약속합니다. 아무도 지옥으로 가는 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오면 지옥으로 가니 우리와 함께 가자” 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천국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천국이라고 써있지만, 바로 지옥으로 보내는 길 입니다. 여기 나오는 두 문은 모두 종교적인 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유신론자와 무신론자의 대조가 아닙니다.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의 대조가 아닙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만을 대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신 것은

구원을 얻는 진정한 길과 구원을 약속하는 변질된 기독교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의 대조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명확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먼저 **좁은 문**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이 좁은 문에 대하여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나머지는 짧게 다룰 것입니다. 그럼, 첫번째 대조인 좁은 문과 넓은 문 중 좁은 문을 먼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 이것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하여 무어라 말씀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명령을 자세하게 풀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명령의 첫번째 의미: ‘들어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는 헬라어로 명령어 입니다. 그것은 즉각 반응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고 만약에 불순종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 됩니다. 참고로, 지옥은 그 좁은 문 앞까지 왔지만 결국엔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높이 평가하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 하나의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릇 해석한 사람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지옥은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 했다는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지금도 계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옥은 기독교와 연관된 많은 종류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옥은 복음의 메시지를 좋아하는 했지만 결국엔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뜻대로 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동사는 ‘들어가라’ 입니다.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들어가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8 절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복음은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와 복음을 나눌때에도 여러분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메시지에 순종하여 믿으라라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내려야 하는 결정은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불순종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초대라는 표현하기 보다는 명령이라고하는 것이 본문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초대로 설교를 마치는 것 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라는 명령으로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명령의 두번째 의미: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들어가라’라고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은 곧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 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은 곧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으로 가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여러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9 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6 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13 절에선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소망을 걸 때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을 때에..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생기는 것 입니다. 로마서 10 장에서 말씀하시듯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실 것**”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문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은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고백하시는 것 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는 것 외에 그 어떤 제사도 없다고 믿으시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치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심판가운데 형벌을 받게 될 것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명령의 세번째 의미: 여러분은 이 좁은 문으로 혼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좁은 문으로 혼자 들어가야 합니다.** 무리들을 뒤로하고 혼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갈수 있는 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입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종교 단체에 가입을 한다거나 교회의 일원이 되는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두 혼자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좁은 문은 기차를 타기 위하여 한 사람씩 철로 된 봉을 밀면서 통과하도록 만든 **개찰구**와 같습니다. 이 문은 한 번에 단 한 명씩만 받아들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 그리고 평생을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 문을 통과 할 때는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단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으로 혼자서 통과해야 하는 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4:26 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가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모든 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아무리 익숙하고 소중하더라도 이 문은 혼자서 통과해야 합니다. 이 문을 통과 할 때 만큼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혼자서 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다라는 사실 때문에 자신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중시하며 그 율법을 어느정도 지킴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모두 쓸모없고 더러운 배설물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쓰레기같은 것들을 붙잡고 이런것들이 그들을 구원해 줄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3 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자라**” 라고 말을 하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빌 3:5-9). 유대인들은 단체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아니다. 한 번에 한 명씩 들어가는 것이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우선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하시고 “이 문으로 혼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명령의 네번째 의미: “여러분은 이 좁은 문을 혼자서 힘겹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 좁은 문을 혼자서 힘겹게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을 쉽게 만드는 사람들을 볼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 길을 쉽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거짓 신자들을 대량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14 절에 무어라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리고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은 이 길은 찾기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문은 우선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 오시기 위하여 집을 떠나 이곳에 도착하기까지 몇 개의 교회들을 지나치시나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순전한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종교지도자들을 거쳐야 하나요? 그 중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고된 탐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저녁예배때에 세례를 받을때 “진리를 알고 싶어서 이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사람 말도 들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안해 본 것이 없습니다.”라는 식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적이자 우리의 영혼의 적인 사단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거짓 종교들과 거짓 교사들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일단 진리를 찾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는데 있어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면, 사단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에서 밝히 말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거짓을 가르쳐 줄 것 입니다. 그래서 그 문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을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그 문은 들어가기에 무척 힘겹습니다. 무척 힘겹습니다. 누가복음 13:24 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여기에 사용된 ‘힘쓰라’라는 말은 고통스러워 하며 힘겹게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말씀에 여러분께서는 “잠깐, 고통스러움을 통하여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구요?”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일이라고요? 내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 앞에서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겨워야 하죠?”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에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24)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올 것 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해도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쓸 것이지만 그들은 결국엔 그 문을 통과하지 못 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 한들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앞에 순복하고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네, 그 길은 들어가기에 힘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왔다가 통과를 통과하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드냐구요? 이사야서 55:7 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옛 사람을 뒤로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 꿈과, 가족들과 가치관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완전히 부인하고 모두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9:23 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속에 필요한 것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너 나은 삶의 패턴을 주시기 위하여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9 장 13 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이 죄를 끌어 안고 있기에, 여러분의 교만을 붙잡고 있기에,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기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겨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철저한 부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고 했습니다. 무어라구요? 예수님께서 왜 그 부자청년에게 그렇게 대답하셨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이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진지한지를 테스트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몸부리침을 통하여 이 청년이 천국으로

침노하여 들어갈지 아니면 포기할지 시험해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떠나며 예기 했습니다. 나는 나의 돈이 중요해.. 내 삶의 결정들은 내가 스스로 내리길 원해.. 내가 열심히 벌은 돈으로 내가 원하는 데로 쓰고 싶어.. 나는 당신의 말을 따를수 없어” 그 젊은 부자 청년은 자신을 부인할 의도가 없었습니다.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것들을 포기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좁은 문은 온 마음을 다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것을 포기하면서 까지도... “이 좁은 문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믿으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들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누가복음 18 장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세리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보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에게만 그의 모든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종교, 교만, 자기 의, 하물며 자기 자신까지도 모두 포기하며 하나님에게만 모든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명령의 다섯번째 의미: **여러분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으로 혼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좁은 문으로 혼자 힘겹게 벌거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으로 혼자 힘겹게 벌거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벌고벗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개찰구를 통과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조그맣고 좁은 그 개찰구는 여러분의 짐들과 쓸모없는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 놓은 사람들만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고서 자기의 못박힐 십자가 하나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25 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 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다구요? 그것은 죄로 가득차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하고, 악한 자신의 실태를 보고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 장에서 주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비유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 각자 비유들의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밭에서 찾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물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값비싼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 들입니다. 이 비유들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 구원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나아는 태도를 보여 줍니다. 곧 그의 이기심, 자기 의, 선행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파산한 자와 같이 빈 손으로, 산산히 부서진 모습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모습으로 나아오를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아올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위하여 어려움 가운데 지나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와 죄를 발견하고 겸손하게 용서해 달라고 벌거벗고 예수님의 나와야 합니다. 자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6 가지 대조중에 첫번째인 좁은문과 넓은 문 중 좁은 문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좁은 문으로 혼자서 힘겹게 벌거벗고 들어가라” 라는 이 모든 의미가 ‘들어가라/Enter’ 라는 ‘명령’ 하나 안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큰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누가복음 14 장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손을 든다거나 기도를 한 다거나 단순히 강대상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것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누가복음 14 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마저도 미워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극단적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자가 건물짓는데 필요한 비용을 먼저 계산하고서 공사를 시작할지 안할지 결정하듯이, 전쟁을 치르려는 자가 미리 대적과 맞써 승리할 수 있을지 아닌지 먼저 앉아 헤아리고 난 후에야 전쟁을 할지 아니면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 결정하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됨으로 여러분이 치뤄야할 대가를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좁은 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짧고 빠르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번째 대조인 좁은 문과 넓은문중에 **넓은 문**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3 절에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은 우선 찾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아주 크게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고 써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이 세상의 많은 종교적인 자들이 다 그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섞여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짐들 또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모두 가지고 들어갈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만과 죄와 자기 의를 모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죄를 서로 용납하며 불편하게 죄에 대하여 예기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헌신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손을 드시거나 강단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원래의 모습대로 계속 살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이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행로의 길이 나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정을 내린다면 누가복음 9 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을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모든것을 내려놓고 예수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6 개의 대조 중 첫번째인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보았습니다. 이제 두번째 대조로 저희들은 넓은길과 좁은길을 보겠습니다** 13 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합니다.”** 큰 문으로 들어가면 길이 넓다고 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면 그 길이 협착하다고 합니다. 넓은 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좀 전에 다루었듯이 그것은 들어가기도 쉽고 걸어가기도 쉽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넓은 길엔 다양한 교리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걸어갑니다. 엄밀히 말해서, 교리는 중요시 하지도 않습니다. 교리는 즐겁게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나누게 만드는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아주 관용적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가치관과 세상관을 가지고 있던지 모두 관용하며 인정 해 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 그 누구도 무엇이 옳은 가치관이다, 세상관이다, 도덕적 기준이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그 넓은 길에는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닐 뿐더러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도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진리가

아니라 많은 경전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각자 스스로가 원하는 진리가 곧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죄에도 아주 관용적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자기 의, 욕망들도 모두 허용합니다. 위선적이고 미혹된 자들이 모두 그 길을 함께 걷습니다. 그러나 시편 1:6 절은 **“악인들의 길은 결국엔 망할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큰 길로 인도하는 티켓 판매자들은 어디나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티켓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15 절에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모두 천국행 티켓을 팔고 있지만 지옥으로 보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온다고 합니다.”** 양털을 입고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양털은 선지자들이 입던 옷 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처럼 다가오지만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자세하게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들은 그들로 죄를 짓지 않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도 있습니다. 14 절에 그 길이 **협착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협착하다는 것의 의미는 딱 끼고, 갑갑하고, 제한된 있다는 뜻입니다. 좁은 문과 마찬가지로 좁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좁은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살아가는 삶을 표현해 주는 것 입니다. 마태복음 28 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좁고 갑갑하고 제한된 협착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대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여러분은 이 좁은 문으로 모두 내려놓고 별거벗은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소원하고 그분의 법을 준수하고 순종하는 삶을 평생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세번째 대조로 멸망의 목적지와 생명의 목적지를 보겠습니다.** 멸망의 목적지와 생명의 목적지. 넓은 문을 통해 넓은 길로 갔을때의 목적지는 멸망입니다. 멸망은 소멸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끝이 없는 영원이란 시간속에서 불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넓은 길은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 드렸지만 그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 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로 갔을때의 목적지는 생명입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 곳에는 하나님과 영원한 축복 속에서의 교제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죄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입니다.

**네번째 대조로 우리는 많은무리와 적은무리를 보겠습니다.** 많은무리와 적은무리넓은 길에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13 절에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도 가득차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넓은 길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셀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믿으며 걷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7:22 절에 **“많은 사람들”** 이 또 등장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여기에 나오는 그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 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잠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선교에 동참하고, 찬양대를 섬기고, 성경공부에 참석하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많은 자칭 크리스천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을테지만 이들이 모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좁은 길에는 적은 무리가 있습니다. 14 절에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불신자들과 가짜 크리스천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진정한 신자만을 허용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그리스에게 순종하는 사람의 수는 적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32 절에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누가복음 13:23 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수가 극히 적은 것을 이해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 아주 적다” 였습니다. 마태복음 22:14 절엔 “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은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메세지를 듣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구원받는 자의 수는 적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섯번째 대조로 말만하는 자와 행동을 하는 자를 보겠습니다. 말만하는 자와 행동을 하는 자를 보겠습니다. 21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말을 하는 자와 행동을 하는 자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만 하는자와 직접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대조입니다. 말만하는 자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 부릅니다. 그러나 주여하고 부르는 행동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진정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진정한 순종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기에는 아주 그럴싸 합니다. “주여 주여” 그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주여를 외치는 것은 그들의 열의를 보여 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은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한 자들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2 절에서는 그들이 세 번씩이나 “주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한 일들을 예수님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아주 극한 강조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의 문제는 이들이 입으로 무엇을 고백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고백이 그 고백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진정 예수님의 뜻에 순종으로 증명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산다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고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아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많은 기적을 행한다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임이 확실하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그릇된 결론입니다. 그들의 예언함과 귀신을 쫓음, 그리고 그들의 수많은 기적행하는 능력은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과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주장은 주장일 뿐입니다. 그들이 행한 그 모든 그럴싸한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진정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속아선 안 됩니다. 그렇게 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였지만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행사했던 능력들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그것들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스스로 속았던 것 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의 많은 경우는 사단의 능력으로 행했던 것들 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행로의 도착지는 그들이 무어라 고백하고 주장하는 것에 있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 갔느냐에 달려 있는 것 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도착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

주장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를 봄으로 그 고백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진정한 신앙이 있는 자들은 그 신앙의 고백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자신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라고 주님 앞에 나오실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압니다. 우리는, 적어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는 것 들보다 더 나쁜것이 있습니다. 더욱 악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님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고 하는 것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일컫는 것 이런 것들은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하는 것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부류의 신성 모독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의 입맞춤과 같습니다. 주님을 경멸하며 배반하면서 입을 맞추며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욕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 악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결코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Jeff O’Hara 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왜 나를 주라 부르면서 나의 명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왜 내가 길이라 하면서 그 길로 걷지 아니 하느냐? 너희는 왜 나를 주인이라 부르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면 나를 탓하지 마라. 너희는 왜 나를 생명의 떡이라 하며 나를 먹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왜 나를 진리라 부르면서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왜 나를 주라 부르면서 나를 섬기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를 심판하여도, 나를 탓하지 말라.”

지금까지 저희는 좁은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멸망의 목적지와 생명의 목적지, 많은 무리와 적은 무리, 말만하는 자와 행동을 하는 자들의 대조를 보았습니다. 이제 여섯번째, 마지막 대조인 모래로 만든 터와 반석으로 만든 터를 보시겠습니다. 24 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24-27)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는 2 개의 터를 보게 됩니다. 튼튼한 돌로 된 반석의 터 위에 지은 집을 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토로 삼아 순종을 하며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은 의로운 삶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무너질 모래의 터 위에 지은 집을 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눈으로는 집의 기초를 볼 수가 없지만 그런 집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6 장 47 절 48 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첫 번째 사람은 땅을 깊게 파고 주추를 반석위에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봐서는 사람들이 주추를 반석위에 세웠는지 모래 위에 세웠는지 잘 모릅니다. 겉으로 보았을때는 둘 다 종교적인 집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폭풍이 불어 닥칩니다. 비 바람과 폭풍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들이 주추를 어디에 세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창수/폭풍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온 삶 만이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집을 어렵게 만듭니다. 다른 한 사람은 집을 쉽게 짓습니다. 한 사람은 깊이 파지만 다른 한 사람은 얇게 팝니다. 한 사람은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짓지만 다른 사람은 급하게 대충 짓습니다. 심판의 폭풍이 올 때 어떤 집을 지었는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나의 집은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와 예수의 의로 지었다. 그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리라” 세상의 모든 땅들은 꺼져버리는 모래와 같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단한 반석위에 서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잘 모르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그 길로 들어갈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며 그 길을 가고 싶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7 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간단합니다. 이게 다입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업드리어 하나님께 자비를 배푸시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나의 죄를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회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새롭게 태어나게 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 오십시오. 예수님께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온다면 그 기도를 꼭 들어 주실 것입니다.